

# 민주 비주류 '孫 독주' 견제 움직임

# 한나라 주류-비주류 '쇄신대결' 가열

### 쇄신연대 '존치' 결정... 응집력은 약화 전망

### 박주선 "손학규 대세론 없다" 공개 견제도

4·27 재보선 이후, 민주당이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세가 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주류 그룹의 견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쇄신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비주류 그룹은 손 대표와 당장 정치적 각을 세우진 않겠지만 당내 세력구도의 한 축으로서 존재감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민주당 비주류 연합체인 쇄신연대는 8인 집행부 회의를 열어 향후 진로 등을 논의한 결과, 모임을 해체하지 않기로 했으며 오는 1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조배숙 최고위원과 김영진 대표, 문학진 상임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쇄신연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쇄신연대가 그동안 민주당 내부의 변화와 개혁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이제 정권교체를 향한 야권 통합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이날 모임에서도 정권교체라는 창립정신을 재확인했으며, 조만간 2기 출범을 위한 성격의 모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정세균 당시 대표 등 구(舊) 당권파에 대한 반대세력 결사체

로 출범한 쇄신연대는 지난해 전당대회 등에서 세를 과시하기도 했으나 소수 계파 연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쇄신연대는 4·27 재보선 선거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해체론'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쇄신연대 집행부가 모임 존치를 결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3일 민주당 비주류 연합체인 쇄신연대는 8인 집행부 회의를 열어 향후 진로 등을 논의한 결과, 모임을 해체하지 않기로 했으며 오는 1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조배숙 최고위원과 김영진 대표, 문학진 상임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쇄신연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쇄신연대가 그동안 민주당 내부의 변화와 개혁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이제 정권교체를 향한 야권 통합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이날 모임에서도 정권교체라는 창립정신을 재확인했으며, 조만간 2기 출범을 위한 성격의 모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정세균 당시 대표 등 구(舊) 당권파에 대한 반대세력 결사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정한 것을 두고 비주류 인사들이 차기 당권과 대권 경쟁 등에 대비, 세력화에 나서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최고위원 등 비주류 수장을 입장에서 '혈혈단신'으로 마이웨이하기 보다는 세력으로 움직일 때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손학규 대세론'을 공식 부인하며,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던졌다.

박 최고위원은 "대선이 1년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지지율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대세론은 마치 하늘에 긴 안개 같은 것이어서 순식간에 안개가 벗겨지면 날아간다. 그동안 대세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쇄신연대 소속 의원 상당수는 손 대표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모임 성격도 출범 초기의 '반(反) 당권파'에서 '야권통합 역할론' 쪽으로 무게중심으로 옮길 전망이다. 당내 견제세력으로서의 응집력은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원내대표 경선·비대위·조기 전대 세대결 양상

4·27 재보선 패배 극복을 위한 한나라당의 쇄신 논의가 '주류 대 비주류' 대결구도 속에 가열되고 있다.

전날 의원연찬회를 통해 터져나온 쇄신론은 3일 원내대표 경선전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의 공약 대결 속으로 옮겨졌다. 이날 일제히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안경률, 이병석, 황우여 의원은 계파화합, 당·정·소통구조 확립, 공천개혁 등을 통한 당 쇄신을 공약했다. 경선이 치러지는 6일까지 원내대표 경선전을 통해 '쇄신대결'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당 지도부의 사퇴에 따라 꾸러질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구성으로 쇄신 바람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장파와 친박(친박근혜) 진영은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주류는 2선으로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류는 당내 화합을 강조하고 있어 당내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조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군이 서서히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당내 경쟁도 '주류·비주류'의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주류가 '수도권 당 대표-영남 출신 원내대표'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대교체론'을 내세우고 있는 소장파에서는 남경필·원희룡·나경원·정두언 의원 등이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조기전

대에서 소신있고 젊고 역동적인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떻게 힘을 합칠까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연찬회에서 주류퇴진론을 전개했던 친박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구원투수론'에 반대하고 있어 당내에 자체 후보를 낼지, 중립 성향의 후보를 지원할 지가 관건이다. "젊은 후보"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다만, 친박계가 쇄신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구석에 몰린 친이(친이명박)계를 자극해 계파갈등을 심화할 것으로 보여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장 의원들이 쇄신을 위한 의원모임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과거에도 쇄신론이 '반박' 바람에 그친 적이 있었고 소장파의 추동력은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 원내대표 경선 '친이·친박' 3파전

### 안경률·이병석·황우여 의원 출마 선언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이 친이(친이명박)계 2명과 친박(친박근혜)계 1명 등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주류 측 3선인 안경률, 이병석 의원과 비주류 측 4선인 황우여 의원은 3일 일제히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약체로 평가되던 비주류 측 황우여·이주영 의원이 전날 황의원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함에 따라 예측불허의 '3강 구도'가 됐다. 이는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6일 원내대표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자가 나오지 않아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등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선은 양분된 친이계가 안경률, 이병석 의원 중 어느 후보에게 표를 주느냐와 황우여 의원에 대한 친박계, 소장파 표의 결집 여부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이주영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4·27재보선 패배 이후 쏟아져 나온 자성과 쇄신의 요구를 반드시 제도화하겠다"면서 "일

부 주류의 2선 후퇴를 이끈 원내대표 선거 승리를 통해 이루겠다"며 주류 책임론을 주장했다.

이병석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인 박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한나라당을 시대정신에 맞게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환골탈태하려는 것"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얼굴이 되고 목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친서민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미 성명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던 안경률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인 김영 의원과 함께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경제 살리기를 당의 핵심정책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EU FTA 비준엔 SSM규제법 휴지조각"

### 여야 원내대표 합의 불구 일부 의원들 반발

민주당이 한·유럽연합(EU) 자유 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내용을 겪고 있다.

여야가 오는 4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한 유통산업발전법(SSM 규제법)이 무력화되고 농축산 대책도 미비한 데다 향후 야권통합 논의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명분이다.

특히, 이 같은 갈등은 손학규 대표와 박지연 원내대표의 주류 측과 정동영, 박주선, 천정배 최고위원 등 비

주류 간의 대결 양상을 띠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박주선 최고위원은 "600만 소상공인을 위해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을 만들었는데, 비준안이 나오면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며 "비준안 처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한·EU FTA 국회 처리 합의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으로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4·27 재보선에 앞서 야당은 한·EU FTA

비준안을 전면적으로 검증키로 합의한 바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천 최고위원도 "4·27 연대 합의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비준안 처리 합의는 야권 내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야당 합의는 4월27일까지만 유효한 합의가 아니다"면서 민주당의 재협상을 요구했고,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SSM 규제법 개정엔 영세 상인을 달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 지도부는 소상공인과 농축산업을 위한 피해대책을 최대한 이끌어냈지만 적극 진화에 나섰

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SSM 입점 제한 '1km 이내'로 확대

### 국회 지경위 관련법 처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 무역협정(FTA) 비준안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규제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부를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을 골자로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무성·정운천 여수 명예시민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 대표와 정운천 전 최고위원이 여수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

여수시는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낸 데 앞장서 온 한나라당 김무성(왼쪽사진) 전 원내대표와 정운천 최고위원을 여수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와 정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여수를 방문, 여수박람회 준비사업에 점검한 뒤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석상교차로 개선과 버스터미널~박람회장 간 도로개설 예산 지원 건의해 국비 320억원을 확보하게

하는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했다.

여수시는 이날 밤 9시 이순신광장에서 열리는 제45회 여수 거북신축제 개막식에서 여수시장, 여수시의외장 등 초청인사 및 시민 등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한나라 호남발전특위

### 오늘 DJ센터 워크숍

한나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운천)는 4일 광주 서구 치평동 감내중건컨벤션센터에서 워크숍을 갖고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결의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은 정운천 전 최고위원과 정용화·김문일·천창녕 호남발전특위위원을 비롯한 광주·전남·전북 지역 사무처, 호남발전 TF팀이 참석해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호남지역 한나라당 활동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재개발지역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1.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2.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3.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재 앞 최고의 상권
4.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 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5.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문화지구

※ 10층 신축건물용 코너

**H.P.011-601-5354**

####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용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 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 다산공인중개사

물류창고 부지구 합 매매·임대

**광주권**

**전남일원**

**자연녹지**

**생산녹지**

8M이상 도로 확보

4500㎡ 이상 (1300평 이상)

**공인중개사 공동중개 환영**

010-2441-1610

####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서구 매월동 준공업지역매매

- ▶ 대지: 263평, 신축창고53평, 사무실 26평
- ▶ 건폐율 60% 유통단지
- ▶ 매매가격: 6억2천만원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 ▶ 계획관리지역: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 ▶ 자연녹지: 700평 ▶ 일반공업지역: 800평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광산구 하남공단내 공장매매

- ▶ 대 지: 700평
- ▶ 건 물: 415평 (공장, 사무실, 기숙사)
- ▶ 전 기: 400KW 9번 도로접
- ▶ 매매가격: 12억5천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538평 ▶ 건 물: 건물 300평
- ▶ 층 고: 9m
- ▶ 호이스트: 2.8톤 3대 하남대로변
- ▶ 매매가격: 12억5천

문의: ☎ 016-644-4265, FAX 523-8558

좋은 물건 다량보유!! 부동산 전문 투자!!

### 복대지 공인중개사사무소

#### 무인텔 부지 매매 (건축허가필)

**위치**

첨단지구 호박 나이트클럽 인근

**평수**

900평

**특징**

1. 무인텔 37개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현재 첨단지구내 모텔들이 상업중심권중 가장 뛰어난곳에 위치하고 있음.
2. 바로옆에는 나이트클럽들이 상업중에 있음.
3. 전후면 도로 출입구가 완비되어있는 근래에 보기드문 무인텔 부지

**매매가: 평당 240만**

**은행융자: 매매가의 80%**

문의전화

☎ 062-364-1612

☎ 010-5678-2536

#### 북구 매곡동 대주피오레 부근

**지역**

1중주거지역

**면적**

대지 1066㎡(322py)

건물 250㎡(75py)

**매매가**

㎡당83만원 (py당249만원)

**용도**

도시형 동원인 전원주택적합

대형가든, 식당

향후 이삼년후 상가신축 부지 최고 적합!

**특징**

주변상권 좋음

아파트 밀집지역

향후 3년내 2배의 지가상승 보장되는 땅!

문의전화

☎ 011-9222-5899

#### 학원 임대 매매전문

**학원매매 대지 170㎡**

건물 99㎡ 3층건물

매매가 3억2천만원 (1.2층학원 3층 주택)

**독서실매매 대지 346㎡**

건물 197㎡ 5층건물

독서실170석 (1.2층상가 5층주택)

엘리베이터있음

매매가 12억

**학원 191㎡ 3층**

보5천 월90만

시권저렴 원생다수 아파트 주택밀집지역(엘리베이터)

**학원 264㎡ 3층**

보4천 월1백30만원

원생다수 아파트 주택밀집지역(엘리베이터)

**학원 254㎡ 2층**

보5천 월1백35만원

원생다수 아파트 주택밀집지역(시비권저렴)

철저한 비밀보장!!

**이나경소장**

☎ 010-8609-1600

#### "금" 상가건물 매매

**위치**

서구 금호동 최고 상권

- 보증금: 1억2천
- 월 세: 7백5십만원
- 매매가: 12억 (조정가)

**"금" 토지건물매매 (상가신축, 투자적합) 위치**

연제동 첨대2지구 대단위아파트입구

- 대 지: 193py
- 건 물: 100py (임대수익중)
- 매매가: 6억8천만원

상/담/문/의

**368-0808**

진월동 1층 대로변 식당 100py

- 보증금 2000만 월 150만
- 주차장 완비
- 고기, 오리, 찜닭, 영점용화 서비스점

봉선동 1층 대로변 식당 45py

- 보증금 5000만 월 185만
- 호프, 퓨전소주방, 구이, 영점용화
- 봉선동대인상권, 시비있음.

상담문의: ☎ 368-6677